

고등학교 사회과 수준별 교육과정의 적용에 관한 연구

- 10학년 사회 지리 영역의 “태풍과 인간생활” 주제를 중심으로 -

송 호 열*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the Differentiated Curriculum to the Social Studies of 10th Grade

Ho-Yul, Song*

요약 : 2002학년도부터 고등학교 사회과도 제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기 시작한다. 제7차 교육과정은 수준별 교육과정을 지향하는데, 크게 단계형, 심화보충형, 과목선택형으로 구분되며, 10학년 사회는 심화보충형에 속한다. 그 동안 제7차 교육과정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으나 각 교과목별로 현장에 적용할만한 연구는 거의 없다. 그래서 사회과의 수준별 교육과정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10학년 사회의 “태풍과 인간생활” 주제를 중심으로 살펴 보았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교육과정상에 명시된 22개 주제에 대해 수준별 학습을 실시하되, 여건이 성숙되면 주제의 수를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준별 학습 집단은 한 학급내에서 2~3 수준의 여러 모듈로 학습 집단을 편성하거나, 두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심화반과 보충반으로 재편성하고, 각 반을 다시 수준에 따라 두 수준의 여러 모듈로 학습 집단을 편성할 수 있다.

심화과정과 보충과정은 기본 학습 내용에 대한 성취 수준 70%를 기준으로 구분하되, 학생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기준을 적용한다. 심화 과정은 기본 과정보다 심도 깊고, 창의력, 사고력, 문제 해결력을 신장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며, 개인별 또는 모듈별로 자기 주도적 학습을 실시하고, 보충 과정은 기본 과정을 반복하거나, 평이하지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유사한 내용으로 재구성하며, 교사의 세심한 안내 및 지도와 아울러 개인별 또는 모듈별로 자기 주도적 학습을 실시한다.

수준별 교수-학습 자료는 각 수준과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에 적합하게 효율적으로 개발하여 널리 배포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수준별 수업에 대한 평가는 학습한 내용 모두에 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평가 자료 모두를 활용하도록 한다.

수준별 수업은 2차시에 걸쳐 이루어지며, 1차시에는 모든 학생이 기본 과정을 이수하고 형성 평가를 실시한 후, 2차시에는 학업 성취 수준에 따라 심화 과정과 보충 과정으로 구분하여 수준별 수업을 진행한다. 심화 과정에서는 모듈별로 과제를 선택하여 수행하고, 제출한 과제물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추가 과제는 학생이 선택하여 각자 수행한다. 보충 과정에서는 기본 과정을 반복하거나 별도로 제시한 과제를 수행하며, 형성 평가나 과제물 평가를 실시한 후, 성취 수준에 미달한 학생은 특별 보충 지도를 받고, 성취 수준에 도달한 학생은 별도의 과제를 선택적으로 수행한다.

주요어 : 제7차 교육과정, 수준별 교육과정, 심화보충형 교육과정, 단계형 교육과정, 수준별 학습 집단 편성, 수준별 교수-학습 자료, 태풍과 인간 생활.

* 서울청담고등학교 교사 (Teacher, Chungdam High School).

Abstract : It is from the school year 2002 that the 7th national curriculum is applied to the social studies of 10th grade. The 7th curriculum aimed at the differentiated curriculum, is generally divided into three types : the level-based differentiated curriculum, the enriched and supplementary courses of curriculum differentiation, and the subject-selected differentiated curriculum. The second type is applied to the social studies of 10th grade.

For the last five years, many researchers have studied about the 7th national curriculum, but there is hardly any research applicable to each of subjects of the high school. Thus I tried to find a way applicable to the differentiated curriculum, mainly referring to the unit “Typhoon and human life” of the social studies of 10th grade. The result of this study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It is explicit in the 7th national curriculum that we must teach 22 units at least by the way of curriculum differentiation. If the situation is improved, we had better teach more units by the same way. There may be two ways of grouping the differentiated students(the ability grouping). One is to form several groups according to two or three differentiated levels of learning achievement within a class. The other is to divide the students of two classes into the enriched and the supplementary class, each of which is reorganized into two or three differentiated groups.

The enriched class consists of the students that exceed 70% of the learning achievement, while the supplementary class consists of others. Students of the enriched class learn more difficult, creative, deliberative and problem-solving contents for themselves or by each team. Students of the supplementary class learn the normal, or easy-yet-interesting contents sometimes for themselves or sometimes under the guide of the teacher.

We must make, distribute widely and use the differentiated instructional materials adjusted to the differentiated curriculum and diverse instructional methods. The evaluation of the differentiated learning is made with regard to all the contents learned in the enriched class and the supplementary class by different ways.

The differentiated class consists of several stages. In the first class, every student learns the normal contents and takes the formative test after the learning. In the second class, students are formed into the enriched and the supplementary classes, the former learns higher level of the contents, the latter the lower level of the contents. In the enriched class, students select and accomplish the task by the unit of team, are evaluated by the report submitted by themselves. Each of students selects and accomplishes additional task for oneself after the learning or not. In the supplementary class, students repeat the normal contents or accomplish another task, and take the formative test. After the test, those students failing to reach the level of the learning achievement are to study the special supplementary contents. Others select and accomplish the additional task as their own will.

Key words : the curriculum differentiation, the enriched and supplementary courses of curriculum differentiation, typhoon and human life

I. 서론

제7차 교육과정기에 적용하게 될 수준별 교육과정은 크게 단계형, 심화보충형, 과목선택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교육부에서 고시한 교육과정 문서에 의하면, 사회 교과는 3학년부터 10학년까지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학년별로 편성하고, 11~12학년은 과목 선택형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고등학교 10학년 사회과에는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이 적용될 예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고등학교 10학년 사회만을 대상으로 논의를 전개하도록 하겠다. 논의를 전개하기 전에 수준별 교육이 필요한 이유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수준별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다음과 같다. 그 동안 우리 나라 중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수준차를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같은 교

제를 가지고 같은 수업 방법으로 일제식 수업을 실시해 왔다. 이런 형태의 수업에서는 학업 성취 수준이 높은 학생들은 이미 아는 내용을 배우면서 지루하게 시간을 보내거나, 잠을 자거나, 다른 교과 내용을 공부하며 가지못해 교실에 앉아 있어야 하고, 수준이 낮은 학생들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학습 의욕을 상실하게 되며, 결국 옆 친구와 떠들거나 장난 치고, 만화책, 소설책 등을 몰래 읽거나, 역시 잠을 자기도 한다.

이런 상태에서 기계적으로 진급하게 되면 학습 결손이 자꾸 누적되어 학생간 수준차는 더욱 크게 벌어지고, 학교 교육은 파행으로 치닫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을 달리하여 모든 수준의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수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즉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학습 집단을 편성하여 수업을 함으로써 현재의 파행적인 학교 수업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수준별 교육이 반드시 효과적이라고만 볼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따르면 수준별 교육은 학업 성취 측면이나, 정서 발달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라는 확실한 증거도 없으며, 오히려 교육적, 사회적 불평등을 확대 재생산하고, 학업 성취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전인 교육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으며, 상위 수준에 진입하고자 하는 학부모들의 욕구가 과열될 경우에는 사교육비 증가를 초래할 염려가 높다는 문제점들이 있다.

이런 찬반양론에도 불구하고 제7차 교육과정이 전면적으로 공포되었고, 이제 그 실행 단계에 와 있다. 기존 교육과정의 문제점은 이미 익히 아는 바이고, 앞으로 시행해야 할 수준별 교육과정은 아직 잘 모르는 상태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대안으로서 부분적으로라도 수준별 교육을 실시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¹⁾

본 연구에서는 수준별 교육과정의 적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교육개혁위원회와 교육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간한 각종 연구 보고서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였다. 그러나 검토 결과에 따르면 아직도 현장에 직접 적용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별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그리고 현장 교사 중 상당수는 수준별 교육과정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먼저 수준별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학교 현장에서 사회과의 수준별 교육을 원만하게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제 7차 사회과 교육과정을 보면 10학년 사회의 모든 주제 (또는 소단원, 내용 요소, 이하 주제로 통일하여 표기)에 대하여 심화 학습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총 113 주제 중 22 주제에 대해서만 심화 학습을 실시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표 1 참조). 교육과정 문서에는 중단원까지만 명시되어 있고, 해당 단원의 내용 요소는 문장으로 기술되어 있다. 따라서 교과서마다 주제의 수가 다를 수 있는데, 대부분의 교과서가 비슷한 수의 주제를 수록하고 있다. 즉 대부분의 교과서가 주제명과 교수-학습 자료, 교수-학습 방법 등은 다를지라도 다루는 중심 내용은 비슷하다.

물론 교육과정에 제시된 주제에 대해서만 수준별 수업을 실시하고 다른 주제에 대해서는 일제식 수업을 실시하라는 의미로만 받아 들여서는 곤란하다. 이들 주제를 사례로 해서 다른 주제도 수준별 수업을 실시하라는 의미로 확대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축소 또는 확대 해석 여부에 따라서 수준별 수업의 편성 및 운영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어떤 운영 방식을 선택하든 이들 모든 주제에 대해서 수준별 교육과정의 실제 적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본 논문의 한계를 벗어나므로 “태풍과 인간생활” 주제를 선택하여,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II. 수준별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1. 수준별 교육과정의 의미

학생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현할 수 있는 교육을 원한다면 학생 개개인의 학업 성취 수준에 따른 개별화 교육을 실시해야 마땅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학교 여건을 보면 전면적인 개별화 수업의 실행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사실 개별화 수업은 차치하고 획일적인 일제식 수업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것도 벽찬 것이 현실이다.

여건이 나쁘다 하여 바른 길을 포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되는 것을 무리하게 추진할 수도 없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수준별 수업

이다. 수준별 수업은 학생들의 학업 성취 수준에 따라 몇 개의 학습 집단으로 편성하여, 각 집단마다 적절한 수준의 교수-학습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즉 개별화 수업의 이상까지는 실천할 수 없지만, 기존의 일제식 수업보다는 학생들의 수준에 좀더 적합한 수업을 실시하려는 것이다.

수준별 수업이 현장에서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는 1997년에 수준별 교육과정을 고시하였다. 수준별 교육과정이 고시되기 전에도 교사 개인 또는 학교 단위에서 수준별 수업을 실시한 경우가 있긴 하지만 외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래서 제7차 교육과정을 수정 고시할 때, 교육 목표와 교육 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 등을 학생의 학업 성취 수준별로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새로 고시된 교육과정 문서에는 교육과정의 최종 집행자인 교사와 단위 학교에 많은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역에 따라, 학교에 따라 교육 여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여건에서 동일한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것은 수준별 교육과정의 기본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준별 교육과정의 유형은 크게 단계형, 심화보충형, 과목선택형 등 3가지이다. 이 중 단계형과 심화보충형은 10학년 까지, 과목선택형은 11~12학년에 적용하며, 도덕, 기술 가정, 체육, 음악, 미술 교과는 수준별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지 않는다. 교육과정 문서에 제시된 것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2. 수준별 학습 집단 편성

수준별 학습 집단을 편성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

하다. 1970년대 이전 우리 나라에서도 실시했던 학업 성취 수준에 따라 학교마다 학생을 별도로 선발하는 학교간 수준별 학습 집단 편성부터, 각 학교에는 일괄 배정되되 학교 내에서는 학년에 관계없이 학생들의 능력에 따라 학습 집단을 편성하는 무학년제, 영재아 또는 부진아만 수준에 맞게 편성을 달리하는 제한적인 무학년제, 학년은 동시 진급되되 능력에 따라 학급을 달리 편성하는 학급간 수준별 학습 집단 편성, 각 학급에는 임의로 배정되되 학급 내에서 수준에 따라 분단 또는 모둠을 편성하여 학습하는 학급내 수준별 학습 집단 편성까지 정말 다양하다. (그림 1 참조) 이 중에서 우리 나라의 현행 제도하에서 비교적 무리 없이 실시할 수 있는 학습 집단 편성 방법은 학급간 수준별 학습 집단 편성과 학급내 수준별 학습 집단 편성뿐이다.²⁾

학년간 수준별 학습 집단 편성은 제 7차 교육과정부터 도입하는 것처럼 되어 있다. 특히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에서는 속진 및 재이수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과목별로 이동 수업을 하거나, 여러 과목에서 속진 또는 재이수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 또한 실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³⁾ 더군다나 심화 보충형 수준별 교육은 속진 또는 재이수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방식은 과목 선택형 교육 과정 운영시나 적용 가능하리라고 본다.⁴⁾

영재아나 학습 부진아에 대해서 속진 및 재이수를 허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도상으로는 현행 교육과정하에서도 실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거의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와 같이 학업 성취 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학생이 진급하는 체제하에서는 굳이 유급(또는 재이수)할 필요가 없으며, 나이를 중시하는 동양 문화하

표 2. 수준별 교육과정의 유형

단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 내용 요소간의 위계가 비교적 분명한 교과에 적용. · 이전 학습의 결손이 이후 학습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교과에 적용. · 교육 내용을 단계별로 편성 운영(수학, 중등 영어).
심화보충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요소간의 위계가 비교적 분명하지 않은 교과에 적용. · 교육 내용은 학생의 능력 또는 흥미에 따라 심도와 폭을 조절하여 구성. · 학년별로 편성 운영(사회, 국어, 과학, 초등 영어).
과목선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교과목을 개설하고 학생들이 교과목을 선택. · 고등학교 2-3학년에서 편성 운영.

지역간	학교간	학년간	학급간	학급내
1-1. 전국 동일	2-1. 완전 경쟁에 의한 진급	3-1. 재이수/속진 완전 허용 (대상 : 학생 전원)	4-1. 모든 학급을 성취 수준별로 편성(완전 우열 반 편성) 최상 ← → 최하	5-1. 구분 안함.
1-2. 시도내 동일	2-2. 지역 제한 경쟁 선발 (시도/시군구 단위)	3-2. 재이수/속진 제한적 허용 (학습 부진아/영재아)	4-2. 성취 수준의 단계별로 학급 편성(단계형 우열 반 편성) (상/중/하, 상/하)	5-2. 상/중/하, 상/하 수준으로 구분
1-3. 시군구내 동일	2-3. 성취 수준별 진급 제한 (상/중/하 수준)	3-3. 재이수/속진 불허 (무차별 진급)	4-3. 무차별 임의 배정(학급간 평균 학습 성취 수준 사전 조정)	5-3. 분단별로 구분
1-4. 대도시/중소도시/군부 별도	2-4. 무제한 진급 (일괄 배정)	3-4. 무학년제 (학년 구분 없음) (학습 단계-학생 선택)	4-4. 행정반 구분 없음. (과목 수준별로 교실 이동 수업)	5-4. 모둠별로 구분
1-5. 대도시/중소도시 이하 별도	2-5. 소속 학교 없음 (학교 배정 안함)			5-5. 개인별로 구분
※ 1-5는 시부와 군부로 구분할 수도 있음.	※ 2-2는 교육청별/교육구청별로 구분 가능 ※ 2-3의 경우 한국은 특수 목적계, 일반계, 실업계로 대체 가능	※ 3-1, 3-2, 3-3은 학년 구분. ※ 3-1, 3-2는 성취 수준에 따라 차별 진급	※ 4-2는 학습 성취 수준에 따라 2~3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 내에서는 무차별 배정 ※ 인문계, 자연계, 예체능계의 구분은 별도 내용이라 제외	

그림 1. 수준별 학습 집단 편성의 다차원 조합

에서는 속진할 경우 질시를 받아(흔한 표현으로 “왕따”를 당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적응하기 어렵다.

학급간 수준별 학습 집단 편성으로는 모든 과목 또는 도구 과목 성적, 각 교과목 성적에 따라 학급을 달리 편성하거나, 영재아 또는 학습 부진아를 모아서 별도의 반을 편성하는 방법이 있다. 사실은 이마저도 우열반 편성이라고 하여 학부모들의 거부감이 강하고 이로 인해서 여러 연구 보고서에서도 지양할 것을 사실상 요구하고 있다. 이 중에서 그래도 현장 적용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은 각 교과목별로 수준별 학습 집단을 편성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각 교과목에 대한 각 학생들의 수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열 의식이 상대적으로 희석될 수 있기 때문이며,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각 교과목별로 자신의 수준에 적합한 수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극복해야 한다. 먼저 현재와 같은 행정반 체제에서는 극히 제한적인 일부 교과목을 대상으로 학급간 수준별 학습 집단을 편성할 수는 있어도 모든 교과목을 대상으로 학급간 수준별 학습 집단을 편성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전 과목을 대상으로 이런 학습 집단을 편성하려면 학생 이동 수업이 전면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⁵⁾ 그리고 고등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과목 선택형 수준별 교육 과정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도 이는 필수적인 조치이다.

제한적인 과목을 대상으로 학급간 수준별 학습 집단을 편성하려면 동일 교과목의 시간을 동시에 배정해야 하며, 결강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강구해야 한다. 이 경우 교사의 수에 따라 수준별 반을 편성할 수 있다. 하지만 교사의 수가 많아지면 시간표를 일치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크게 두 수준으로 반을 편성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학급내 수준별 학습 집단 편성은 개별학습이 이상적이거나 이를 실천하는 것은 다인수 학급인 우리 나라 현실에서는 역시 실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수준에 따라 4개 이하의 분단을 편성하거나 학교 실정에 따라 4~6명 정도의 모둠을 편성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수준별 학습 집단은 어떤 기준에 따라 편성할 것인가?⁶⁾ 그 기준으로는 해당 교과목의 학업 성취 수준을 비롯하여, 해당 교과목에 대한 학생

의 흥미와 관심, 인접 관련 교과목의 학업 성취 수준, 도구 교과목의 학업 성취 수준, 학생의 성장 배경, 학생 또는 학부모의 의지, 담당 교사의 판단,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 등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교육은 여러 가지 요소가 종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모든 요소를 다 고려하여 학습 집단을 편성하는 것은 기준이 애매모호해질 수 있으므로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이 좋겠다. 먼저 해당 교과목의 전단계 학업 성취 수준을 기준으로 구분을 한다.

여기에서 수준 구분 기준이 문제로 등장한다. 교사 나름대로 목표 수준을 정하고 그 이상 달성했다면 상반, 그 이하를 하반으로 구분하는 것이 좋다. 목표 수준은 대략 60-70% 정도로 정하면 좋을 것 같다.⁷⁾ 원래 학생들에게 제시되는 교과 내용은 그 학년에서 달성해야 될 목표이므로 이 정도의 목표 수준은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다. 다음으로는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 열성 등을 감안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소속 학습 집단을 변경하도록 허용해야 한다.⁸⁾ 이 때 너무 많은 학생이 변경을 신청할 경우에는 인접 관련 교과목 및 도구 교과목의 학업 성취 수준을 고려하여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수준 차이가 별로 없었다면 별개의 문제이지만 수준 차이가 현저함에도 불구하고 모두 상반에 속하고자 한다면 적합한 교수-학습이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적절하게 인원을 배정하는 것이 의미 있기 때문이다.

그럼 학습 집단 편성은 언제 하는 것이 좋은가? 이 문제는 평가 회수와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제일의 기준이 이전 단계의 학업 성취 수준이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이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고려하여 평가를 최소화하려는 추세라면 공식적, 전체적으로 1년에 4회의 평가를 행하게 된다. 그렇다면 1년에 4회 정도 상반과 하반의 구성원을 교체할 수 있다. 하지만 한번 편성한 학습 집단의 안정성도 고려해야 하므로 적어도 한 학기 정도는 지속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너무 자주 학습 집단을 바꾸게 되면 학업 성취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학생 개개인의 심리적인 측면에서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사회과의 경우는 상황이 좀 다른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章)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

3. 수준별 교육과정의 운영 방안

수준별 교육과정의 유형에 따라서 운영 방안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사회과와 관련이 있는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에 한정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심화보충형 교육과정의 기본적인 형태는 모든 학생들이 기본 과정을 이수한 후에 학생들의 학업 성취 수준에 따라서 심화 또는 보충 내용을 학습하는 것이다. 기본 과정의 학습에서 학업 성취 수준이 높은 학생들은 심화 과정을 이수하고, 학업 성취 수준이 낮은 학생들은 보충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다.⁹⁾

심화 학습은 새로운 내용보다는 기본 과정에서 이미 다룬 내용보다 심도가 더 높은 것으로서 난이도나 복잡도가 높은 활동, 사고력, 문제해결력, 창의력 등을 요구하는 활동 위주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 보충 학습은 학생이 기본 과정에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내용을 다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기본 학습 내용을 반복하거나 요약하여 제시해도 무방하다. 하지만 이들은 학습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같은 내용이라도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적절한 교수-학습 방법을 찾고, 그에 따른 교수-학습 자료를 제작해야 할 것이다.

심화 과정은 기본 과정과는 접근 방법이 다르고, 탐구 수준이 높으며, 기본 학습 내용을 실생활에 적용하거나, 직접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심화 과정에 제시된 학습 내용은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내용은 아니므로 교사의 판단에 따라 성격이 유사한 다른 내용을 선정하여 제시하여도 된다.

여러 논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습을 할 때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따라서 기본 과정의 학습을 마친 후에 학생들의 선택에 따라 이루어지는 심화보충학습은-학생들의 여러 가지 특성 차이가 현격할 수 있으므로-개별 학습이나 모둠 학습 형태를 취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된다.

학습 활동 역시 교사가 상세하게 안내하기 보다는 학생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좋다. 심화 과정에 비해 보충 과정의 경우에는 교사의 안내와 지도가 더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 역시 학생의 자기 주

도적인 학습을 장려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많다. 또한 학생들의 학업 성취 수준에 맞게 다양한 과제를 제시하고 본인의 흥미와 적성, 학습 능력 등에 맞게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하여 학습하게 하고, 같은 주제를 선택한 모둠 내에서도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심화보충 학습에 대한 시간 배당은 학교의 여건에 따라 교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완전 자율에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기준은 제시되어 있다. 교과별 연간 수업시수는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다. 사회과의 경우 6단위가 배정되어 있으므로 주당 3시간씩, 최소 34주 수업을 실시한다고 가정했을 때, 102시간 이상의 연간 수업 시수가 확보되어 있는 셈이다.¹⁰⁾ 이 중 기본 과정에 80%를 심화보충과정에 20%를 배당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교육과정대로 정해진 주제에 대해서만 심화보충 학습을 실시한다면 기본 과정 학습 시간과 심화보충 과정 학습 시간을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을 따르는 것이 무난하다. 하지만 매 시간마다 수준별 수업을 실시한다면 이런 구분은 무의미해 질 수밖에 없다. 매 시간 학급내 수준별 학습을 실시할 경우, 심화 모둠은 수업 시간의 일부를 할애하여 기본 과정은 물론이고 심화 과정까지 학습하고, 기본 모둠은 수업 시간 내에 기본 과정만 학습하며, 보충 모둠은 재량 활동 시간이나 방과후 특별 보충 학습 시간까지 동원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야 하므로 기본 및 심화보충 과정에 대한 시간 배분은 의미가 없다.

이 외에 사회과와 관련된 구체적인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방안은 다음 장(章)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4. 수준별 교수-학습 자료의 제작 및 활용

수준별 교수-학습을 원래 의도대로 잘 진행하려면 이에 적합한 교수-학습 자료를 수준별, 교수-학습 방법별로 제작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은 일제식 수업하에서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교수-학습 자료를 한 가지만 제작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교수-학습 자료 개발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같은 내용을 교수-학습하더라도 교수-학습 방법이 다르면 각 방법에 적합한 교수-학습 자료가 필요하고, 지역과 학교에 따라 교육 여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수준별 학습의 경우에는 학생들의 수준까지 고려

한 교수-학습 자료를 제작하여야 하기 때문에 현행보다 3~4배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 학생의 수준과 적용할 교수-학습 방법을 고려한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은 현행과 같은 내용 전달 위주의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성 또한 요구된다. 따라서 이들 자료를 누가 제작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첫째, 교육부가 책임을 지고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사회과는 검정 교과서이므로 해당 출판사가 교과서와 지도서 외에 교수-학습 자료까지 제작하여 배포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이것이 부담스러우면 지도서를 별도의 책자로 제작하지 않고 교수-학습 자료를 모아 출판사별로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서비스를 하게 할 수도 있다.

둘째, 각 시도 교육청이나 교육과학연구원 등의 주도하에 제작하는 방식이다. 각 시도가 독자적으로 제작할 수도 있고, 상호 협력하여 제작할 수도 있다. 2001년 현재 각 시도가 교과를 나누어 맡아서 수준별 교수-학습 자료를 제작하고 있는 중이다.

셋째, 각 교과별 교사 단체의 주도하에 제작하는 방식이다. 교사 단체는 유능한 교사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우수한 교수-학습 자료를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하나 비용 조달이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 적절한 지원 또는 보상 체계만 갖추어 진다면 이 방식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각 학교 또는 교사 개인 차원에서 교수-학습 자료를 제작하는 방식이다. 현실적으로 볼 때 모든 고등학교의 교사들이 각각 수준별 교수-학습 자료를 제작하는 것은 시간과 금전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수준을 담보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자료를 상호 공개하고, 교사간의 교류를 활발하게 유지할 수 있다면 가능한 방식으로 생각된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수준 높은 교수-학습 자료 제작을 위해서는 모든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교수-학습 자료 제작팀에 합류하여 본인이 가장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의 자료를 개발해야 한다. 별도의 자료 제작팀을 구성하고, 이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두어 구성원들의 “내용 영역”을 조정하고, 전체적으로는 글 편집, 그래프·그림·사진 편집, 동영상 제작, 홈페이지 제작 등의 “업무 영역”도 분담하도록 조정해 주어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자료를 제작하면 교사 각 개인은 크게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해당 교과 전체에 대한 다양한 수준,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에 적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한번만 제작하면 되므로 비용 면에서도 훨씬 저렴하며,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료를 보급하게 되면 보급상의 문제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

일선 학교에서는 인터넷에서 자료를 선택하여 학생들에게 제시하면 되는데 학교의 여건과 학생들의 수준을 감안하여 적합한 학습 자료를 선택하도록 한다. 이들 자료의 제시 방법은 학교 여건에 따라서 다양한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자료를 내려 받아서 인쇄물이나 OHP TP 등으로 자료를 변환하여 제시하면 된다.

하지만 이렇게 일괄적으로 자료를 개발하다보면 학교 현장의 여건에 잘 맞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교과목 담당 교사가 자료를 본인의 컴퓨터에 내려 받아서 학교의 여건과 주변 상황에 적합하게 수정하여 사용하면 된다. 그리고 이렇게 제작한 자료는 다시 교과별 홈페이지나 교사 연구 단체 등의 게시판에 등록하여 필요한 다른 선생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면 더욱 좋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수-학습의 수준이 더욱 높아지고, 각 상황에 적합한 교수-학습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교수-학습 방법에 관련된 자료나 평가 문항, 사진 자료 등도 공유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

5. 수준별 교육과정 적용 교과의 평가

현재 수준별 교육과정과 관련된 여러 보고서에서 평가와 관련하여 요구하고 있는 사항을 살펴보면 첫째, 재이수 보다는 특별 보충 과정을 통해서라도 모두 진급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둘째, 진급 여부에 대한 판정이나 심화 보충 학습 집단의 편성은 단위 학교와 교사가 주체가 되어 결정하며, 이 때 절대적 기준과 상대적 기준을 함께 고려한다. 셋째, 형태는 좀 달라지더라도 현행 평가 체제의 골격은 계속 유지하도록 한다. 넷째, 교과의 특성에 적합한 평가 방안을 연구하여 적용한다. 등이다.

현실적인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나온 요구 조건이지만 궁색함을 면하기 어렵다. 단계형의 경우, 보충 지도도 하고, 특별 보충 지도를 했는데도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재이수를 하게 하고, 수준이 뛰어난 학생은 상위 단계부터 학습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 그리고 단위 학교와 교사에게 자율권을 많이 부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역시 논란의 여지가 많은 골칫거리를 떠넘기는 듯한 인상이 강하다. 이제 학부모와 학생, 대학 등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공정하면서도 성취 수준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 방안을 마련해야 될 때가 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불합리한 각종 제도도 시급하게 정비해야 한다.

앞에서 살펴 본 내용은 평가 자료를 대학 입학 전형 자료의 하나인 내신 성적 산출 근거로 삼아야 하는 불가피한 현실 상황 때문에 제기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수준별 교육과정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도 평가는 필요하다.

수준별 교육과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학생의 학업 성취 수준을 알아야 한다. 그에 따라서 심화 보충 학습 집단을 구분하고, 각 집단에 적합한 교수-학습을 실시한 후 그 학습에 대한 성취 수준도 확인해야 된다. 이 결과를 토대로 과제 부과나 특별 보충 학습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평가의 실시 시기와 회수, 결과 분석 등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평가는 학생들이 학습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원래의 취지대로 교육과정이 운영된다면 단계형에서는 그 단계에서 학습한 내용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단계와 함께 그에 대한 성취 수준을 기록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을 수 있다. 하지만, 심화 보충형은 심화 학습 집단과 보충 학습 집단이 서로 다른 내용을 학습하기 때문에 평가 내용 요소가 문제가 된다. 보충 학습 집단은 대개 기본 학습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로 심화 학습 내용의 포함 여부가 문제가 된다.

내신 성적 산출 근거로 사용할 경우에는 둘 다 포함하여 평가하는 것이 학업 성취 수준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방법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만 기본 과정뿐만 아니라 심화 보충 과정까지 포괄하여 학업 성취 수준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기본 과정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 한국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심화 보충 과정은 형식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심화 보충 학습에 대한 학생 각자의 학업 성취 수준을 측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학습 집단별로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 평가하면 되고 교사의 판단에 따라 적절한 평가 방식을 선택하여 실시하면 된다.

평가의 시기는 총괄 평가는 현행대로 학기당 중간과 기말 두 번에 걸쳐서 일제히 실시하되, 평가 결과는 수행 평가와 수시 평가 등 여러 가지 평가를 합산하여 기록하도록 한다. 심화 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면 해당 차시마다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기본 학습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보충 및 심화 학습이 끝난 후에도 각각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평가의 형태는 다양할 수 있다. 앞으로 수준별 이동 수업이 각 과목별로 제대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평가의 시기와 방법, 형태에 대한 교사의 자율권이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이 보장될 것이다.

평가 결과를 진급이나 학습 집단 편성의 기준으로도 사용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III. 사회과 수준별 교육과정의 적용 방안

1. 교수-학습 계획과 지도 방안

고등학교 10학년 사회과의 경우 중단원 또는 주제와 관련하여 22개의 심화 과정이 제시되어 있다. 해당 주제에 대한 수준별 수업은 1차시와 2차시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된다.

1차시에서는 먼저 관련 단원의 기본 내용을 중심으로 모든 학생에게 같은 수준으로 교수-학습을 진행한다. 예를 들어 “태풍과 인간 생활”¹¹⁾의 관계에 대해서 학습한다면 먼저 표 3과 같이 학습 목표를 제시한다.

다음 단계에서는 학교의 실정에 맞는 방법을 찾아 태풍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유발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학습 의욕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그림 2 참조). 태풍 관련 사진이나 화보를 보여 주거나, 태풍 피해 관련 통계 자료를 제시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신문에 실린 기사를 TP에 복사하여 OHP로 제시하거나 피해 상황을 보도한 TV 뉴스를 컴퓨터로 검색하여 보여주는 것도 효과적이다. “허리케인”, “피

표 3. 학습 목표

- 태풍 관련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태풍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 태풍의 발생 원인과 피해 규모를 알아보고 피해 저감 대책을 제시할 수 있다.

펙트 스톱” 등의 태풍과 관련된 영화를 보여주는 것도 좋은데, 이 경우에는 시간 배분을 잘 해야 한다.

내용 전개시에는 내용의 학습 순서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태풍과 인간 생활” 주제와 같이 자연과 학적인 접근 방법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내용의 전개 순서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 단원의 학습의 경우에는 크게 보아 태풍의 특성, 태풍이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 대책 수립 등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중 1차시에서는 태풍의 특성과 관련된 내용만 다루고, 나머지 부분은 2차시에 심화반과 보충반에서 수준에 따라 학습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¹²⁾

태풍의 특성¹³⁾에서는 발생 지역 - 발생 원인 - 발생 시기 - 태풍의 위력 - 태풍의 구조 - 태풍 예보 - 태풍의 성장·이동·소멸, 태풍 피해 등의 순서로 학습하는 것이 좋다(표 4 참조). 학습 전개가 논리적, 체계적, 탐구적,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의해야 한다. 내용 전개시 적절한 질문을 통하여 선수 학

습 내용을 잘 이끌어 내야 하며, 이해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각종 시청각 자료를 풍부하게 확보하여 제시하는 것이 좋다.

내용 전개 말미에는 습득한 지식을 오랫동안 기억하도록 지금까지 교수-학습한 내용을 잘 정리하여 제시해 주는 것이 좋다. 이 때 정리할 내용을 미리 작성하여 OHP TP나 파워 포인트 자료 등으로 제시하면 효과적이다. 적용 교수-학습 형태에 따라서 교사는 수행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이후 실시하는 형성 평가 결과와 합산하여 학습 집단 편성 자료로 활용하면 좋다.

이 시간에 배운 것 중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형성 평가를 실시한다. 형성 평가 문항은 10문항 이내로 제시하되 학생들의 수준을 판별할 수 있도록 난이도가 서로 다른 다양한 형태로 개발하는 것이 좋다(표 5 참조). 형성 평가지 역시 미리 준비해야 하며, 학생들이 교차 채점하도록 해도 무방하다. 채점 후에는 학생들 스스로 서로의 미비점을 보완해 주는 별도 시간을 갖는 것도 좋다. 이 시간을 통해 다음 시간에 이루어질 수준별 학습에 대한 거부감이나 우열 의식을 희석시킬 수 있으며, 본인의 수준이 명백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분반시 형성평가 점수에 관계없이 본인이 속하고 싶은 반을 스스로 선정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교사가 채점을 하는 경우에는 답안지를 수합하여 별도의 시간에 교사가 채점을 한다. 이 경우에는 교사가 학생의 수준을 더욱 잘 파악할 수 있고 이후의 학습을 더 잘 안내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자주 수준별 수업을 실시해야 되고, 여러 반을 담당해야 되는 경우에는 채점 작업의 부담도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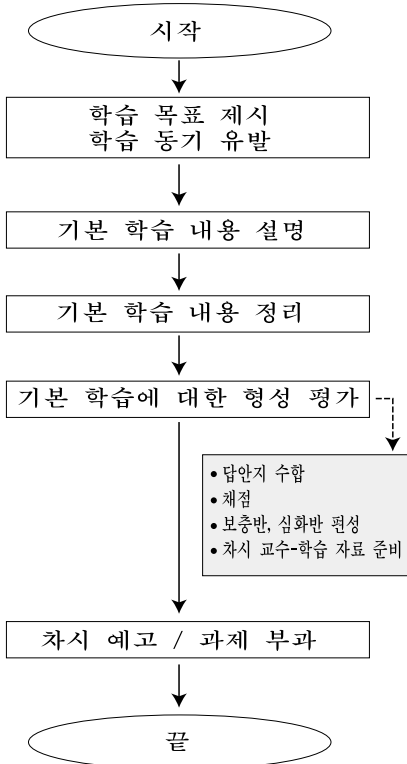


그림 2. 1차시 모형

표 4. 기본 학습 내용

-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열대성 저기압과 태풍의 정의 2) 태풍의 발생 지역 3) 태풍의 발생 원인과 조건 4) 태풍의 발생 시기 5) 태풍의 등급 분류와 명칭 부여 6) 태풍의 구조 7) 태풍의 위력 (가항반원과 위험반원) 8) 태풍의 성장 - 이동 - 소멸 9) 태풍의 예보 10) 태풍 피해 | : 생략 가능 |
|---|---|

표 5. 기본 학습에 대한 형성 평가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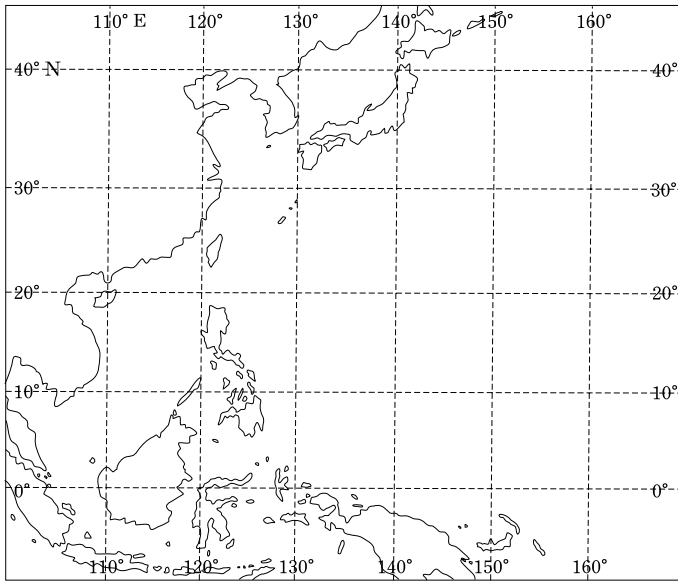
1) 태풍과 성질이 비슷한 열대성 저기압으로서 북아메리카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 ① 치누크 ② 사이클론 ③ 윌리윌리 ④ 토네이도 ⑤ 허리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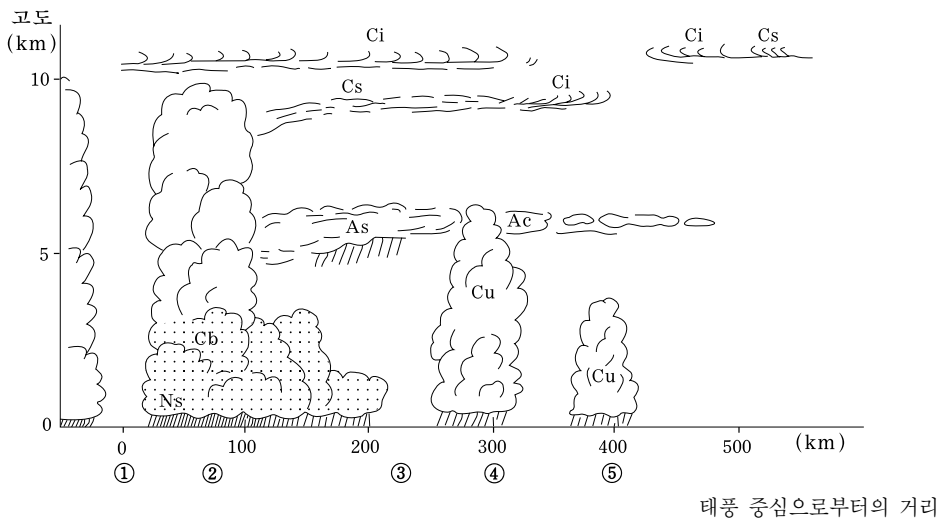
2) 보기의 () 안에 알맞은 용어를 쓰고, 그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하라.

태풍 진행 방향의 왼쪽은 ()반원이고, 오른쪽은 ()반원이다.

3) 아래 지도에 태풍의 주요 발생 지역을 표시하라.



4) 아래 태풍의 구조도에서 바람이 약하고 하강기류의 영향으로 날씨가 맑은 구역은?



채점 결과에 따라서 학습 집단을 편성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기술하였다. 여기에서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학생들의 수준에 큰 차이가 없다면 굳이 별도의 학습 집단으로 구분할 필요가 없으며, 학업 성취 수준에 따라 강제적으로 학습 집단을 편성하기 보다는 학생들의 의사를 가급적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학습 집단 편성이 끝나면 차시 학습에 대하여 안내하고, 각 수준 반별로 적합한 과제를 부여한 후 1차시 수업을 종료한다.

2차시에는 지난 시간에 이미 부여받은 과제를 수행해 왔는지 확인을 한다(그림 3 참조). 과제 수행 정도에 따라서 이후의 교수-학습 활동을 다르게 전개해야 한다. 이 때 교사의 임기응변 능력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일제식 수업과는 달리 수준별 수업은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교수-학습을 실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습 준비 단계부터 예민하고 철저하게 살펴서 수준을 정확하게 찾아내야 한다.

현재와 같은 교실 환경 하에서는 한 교실에서 여러 학습 집단이 교수-학습 활동을 진행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하지만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에게 보

다 적합한 교수-학습 활동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심화반과 보충반도 다시 여러 소집단으로 편성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된다. 여기에서는 각각의 반을 두 수준의 여러 모둠(상하 각각 네 모둠 정도)으로 편성하고, 별도의 학습 자료를 각 수준마다 제시한다. 각 학습 자료는 약간의 여분을 준비하여 다른 수준의 학습을 원하는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좋다. 보충반의 경우에는 가능하면 기본적인 내용을 흥미 있게 작성하여 반복 학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여야 한다. 심화반의 경우에는 교과서에 제시된 자료를 중심으로 수업을 하되 인터넷 망을 이용하여 각종 자료를 조사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다거나, 찬반양론이 비등한 사건이나 관심 있는 사회 현상을 선정하여 토론을 통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심화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태풍과 인간 생활” 주제 같은 경우에는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종류별로 파악하고 언제, 어디에서 어떤 종류의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 분류하며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등의 학습 활동을 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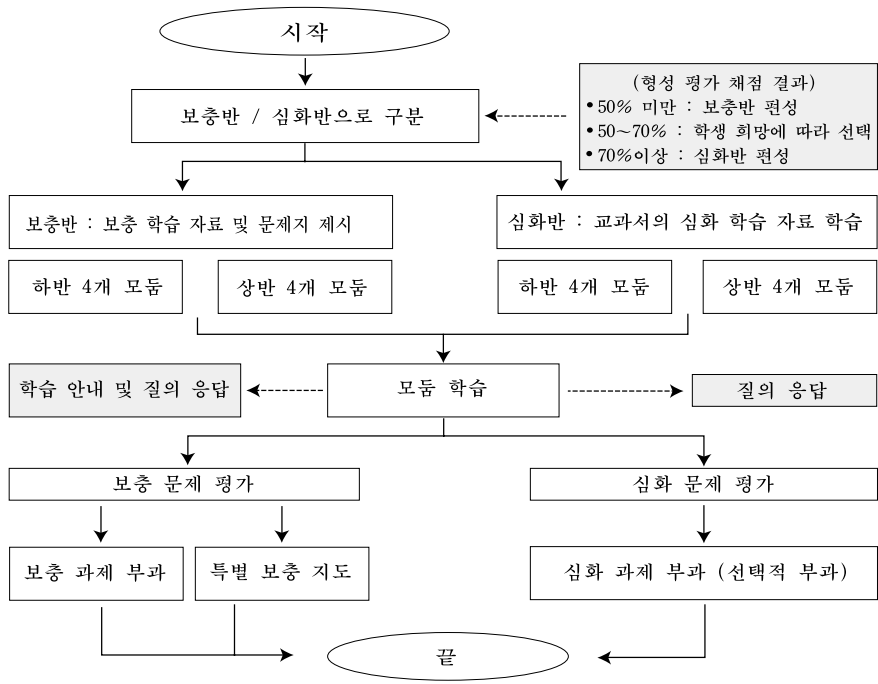


그림 3. 2차시 모형

생 스스로가 실시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한다. 수준별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교사는 각 모둠을 순회하면서 학습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모둠의 경우에는 학습 과정을 안내하고, 학생들의 질의에 응답하도록 한다. 교사는 특히 하 수준의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시간과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통상적으로 상 수준의 학생들은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잘 진행해 가는데 비해 하 수준의 학생들은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교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지도할 필요가 있다.

보충반과 심화반의 학습에 있어서도 여기에 제시한 교수-학습 방법이 유일한 것은 아니다. 지역과 학교의 실정에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을 탐색하여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모둠 학습이 끝나면 각각의 학습 내용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하는데 수준별로 서로 다른 평가지를 사용한다. 평가는 그 학습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화반은 심화반에서 배운 내용에 대해서, 보충반은 보충반에서 배운 내용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마땅하다. 물론 이들 평가 자료가 대학 입학 전형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도외시하기 어렵지만 소신을 가지고 원칙을 지켜나가려는 교사들이 많을 때 왜곡된 교육 현실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점 또한 상기할 필요가 있다.

평가 후에는 학생들 스스로 교차 채점하게 하고 목표 수준에 미달한 학생들에게는 별도의 과제를 부과하여 미흡한 부분을 보충하게 한다. 특히 보충반 학생 중 목표 수준에 미달한 학생에게는 특별 보충을 통해서라도 목표 수준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에서 기술하도록 하겠다.

2. 학습 집단의 편성

제한적인 과목을 대상으로 학급간 수준별 학습 집단을 편성하려면 동일 교과목의 시간을 동시에 배정해야 하며, 결강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강구해야 한다. 사회과목의 경우 모든 차시에 걸쳐 수준별 수업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차시에 대해서만 수준별 수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사회과 내 부적으로는 문제의 소지가 적지만, 일부 차시의 수업을 위해서 다른 교과목의 시간표 작성 및 수업 진행에 곤란을 유발한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다른 교과 담당 선생님들께 피해를 입히는 결과가 된다.

교과목별로 학급간 수준별 반 편성을 할 경우 교사의 수에 따라 수준별 반을 편성할 수 있다. 하지만 교사의 수가 많아지면 시간표를 일치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크게 두 수준으로 반을 편성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그 반 내에서 2~4 수준의 학습 집단으로 구분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학급내 수준별 학습 집단 편성은 개별 학습이 이상적이나 이를 실천하는 것은 다인수 학급인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수준에 따라 4개 이하의 분단을 편성하거나 학교 실정에 따라 4~6명 정도의 여러 모둠으로 편성하는 것이 좋다. 한 학급 안에 수준에 따라 여러 학습 집단이 존재한다면 각각에 맞는 교수-학습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교수-학습 방법도 각각 달라야 한다. 한 교사가 이를 다 감당하려면 각 수준의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적어도 준비는 해야 한다)해야 하고 각 수준에 맞는 교수-학습 방법을 찾아 익혀서 적용해야 하는데 이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과 노력이 만만하지 않다. 더군다나 수업 시간에 각 집단의 지도 및 안내에 할애할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보조 교사 없이 혼자서 여러 수준의 학습 집단을 한꺼번에 지도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분단을 여러 개 편성하더라도 수준은 2~3개 정도로 구분하는 것이 무난해 보인다.

앞에서 살펴 본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했을 때, 두 가지 유형의 학습 집단 편성이 사회과 수준별 학습 집단 편성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가능하다면 두 반씩 같은 시간에 사회 수업을 편성하고, 수준에 따라서 두 반의 학생을 상, 하 두 반으로 재편성하고, 다시 각 반을 상, 하 두 집단으로 편성하는 것이다. 이 때 각 집단은 학생수를 고려하여 수준이 동일한 두 분단 또는 네 모둠으로 편성한다.¹⁴⁾

둘째, 여러 가지 주변 사정이 허락하지 않아서 학급내에서 수준별로 학습 집단을 편성해야 한다면, 심화와 기본(또는 보충)의 두 집단으로 편성하거나 심화, 기본, 보충의 세 집단으로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 학생 입장에서 볼 때, 수준 차이가 적을 경우에는 두 집단으로, 수준 차이가 많을 경우에는 세 집단으로 편성하고, 교사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교사의 역량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면 세 집단으로, 그렇지 않다면 두 집단으로 편성하는 것이 좋다. 네 집단 이상으로 편성하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이유들 때문에

오히려 학습 결손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사회과 수준별 학습 집단의 편성 기준도 앞 장(章)에서 설명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각 기준의 고려 우선순위는 달라야 한다. 학생마다 각 교과에 대한 흥미와 관심, 열성 등이 다르고, 기본적인 수학 능력도 다를 것이므로 전 과목의 총점이나 도구 과목 총점 보다는 사회 교과와 성적의 최우선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사회 교과는 크게 보아 지리와 일반사회 영역, 세분하면 자연지리, 인문지리, 환경문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각 영역 또는 대단원마다 학생의 수준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각 영역 또는 대단원에 대한 각 학생의 수준에 따라 학습 집단을 편성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 교과와 학업 성취 수준 이외에 고려할 것은 학생의 의지와 교사의 판단 등이고, 기준을 적용할 때는 어느 정도 융통성을 부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교육과정 문서에도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수준별 학습 집단 편성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수준별 학습 집단 편성 자체가 곤란해질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각 학습 집단에 대한 평가 및 그 결과의 해석, 판정 방법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물론 수준별 학습 집단 편성이 장기간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차시마다 수준별 학습 집단을 새로 편성하여 교수-학습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전혀 대두되지 않을 수도 있다.

수준별 학습 집단의 편성 시기를 논의할 때, 사회

과의 경우 한 가지 측면을 더 고려해야 되는데 모든 주제에 대해서 수준별 수업을 할 것인가? 아니면 교육과정에 제시된 해당 주제만 수준별 수업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모든 주제에 적용할 경우에는 앞 장(章)에서 제시한 대로 학기별로 학습 집단을 편성하면 된다. 하지만 2주에 한번 즉 6~8시간에 한번 정도씩만 수준별 수업을 하는 경우라면 교사가 수행 평가를 통하여 해당 대단원, 중단원 또는 관련 주제의 성취 수준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학습 집단을 편성하는 것이 오히려 그 주제의 학습을 수준별로 진행하는데 더 적합한 학습 집단을 편성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기존의 행정반에서 함께 배우다가 수준별 수업을 실시할 때만 가끔 새로운 학습 집단을 편성하기 때문에 안정성 측면에서의 문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3. 심화 학습 지도 방법

제 7차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수준별 교육은 심화반, 보충반 모두 비중을 두어 교육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국가와 사회의 현실적인 사정을 감안한다면 수준별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이 바로 심화반 학생들에 대한 지도이다. 정보와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화 시대에서 국가간 무한 경쟁을 이겨내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두뇌를 많이 양성해야 한다.

해당 주제에 대해서 2차시로 나누어 수준별 교수-학습을 실시할 경우 1차시에는 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기본 내용을 다룬다(그림 4 참조). 기본 내용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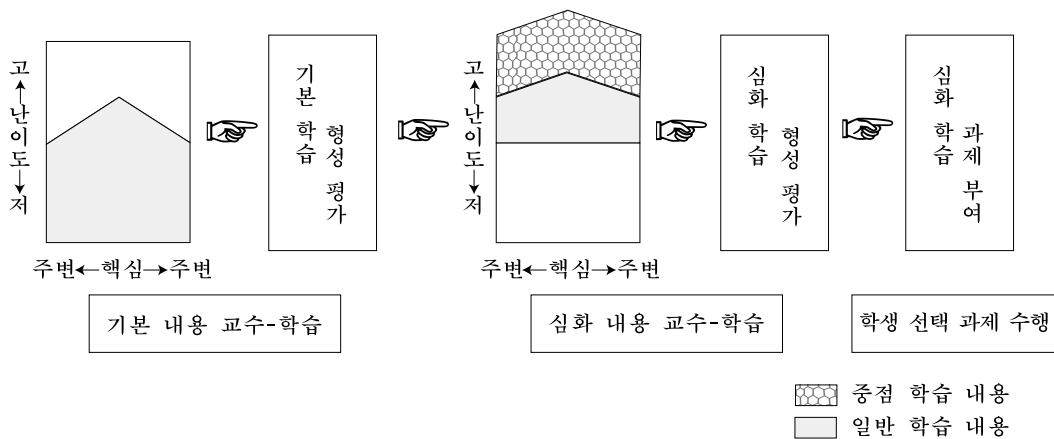


그림 4. 심화 학습 지도 과정

교수-학습에서는 다양한 수준의 학생이 한 교실에서 다 함께 수업을 받기 때문에 어느 수준의 학생을 주요 교수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교과서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들은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 알아야 될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기초적인 즉 난이도가 낮은 내용들은 웬만한 학생들이면 다 알 것으로 전제하고 수업을 진행해야 옳을 것이다. 학습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보다 조금 더 진전된 또는 난이도가 좀 더 높은 내용을 다루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렇다면 난이도가 높은 상 수준의 내용은 가급적 배제하고, 중 수준의 내용은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중점적으로 다루며, 하 수준의 내용은 섭렵하는 정도로 다루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기본 학습이 끝나면 형성 평가를 실시한 후 학업 성취 수준이 70% 이상인 학생들로 심화반을 편성한다. 심화반을 편성할 때 성취 수준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여 학생들의 선택권을 불허하기 보다는 일정

수준 이내의 차하위 학생들에게 심화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심화반 편성 대상자 중에서도 보충반에 참여하고자 하면 허용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을 것 같다.

심화반 담당교사로 반드시 더 유능한 교사를 배정할 필요는 없다. 일반적으로 심화반의 수업이 보충반의 수업보다 수월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사들이 보충반보다는 심화반을 맡으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것은 학생들의 학업 성취 수준에 따라 1학기 또는 1년 단위로 학급을 편성할 때에 해당하고, 해당 주제별로 학업 성취 수준에 따라 학급을 새로 편성할 경우에는 두 교사가 교대로 심화반과 보충반을 맡으면 된다.

심화반의 학습 내용은 난이도 면에서는 기본 내용 교수-학습보다 한 단계 이상 더 높은 수준에서 주변 내용까지 폭넓게 다루도록 한다(표 6, 표 7 참조). 이 때 학생들은 본인 또는 모둠의 의사에 따라 학습할 내용을 선택하도록 한다. 교수-학습 방법은 해당 단원의 내용에 따라 달라야 하겠지만 교사 주도의 학습 보다는 학생 주도의 수업, 내용 암기 위주가 아닌 새로운 사실을 조사 발표하는 수업, 사회 현상에 대한 분석 및 판단, 토론 등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학습이 끝난 뒤에는 형성평가를 실시하는데 기본 내용 학습에 대한 평가나 다른 수준의 학습 집단에 대한 평가와는 평가 방식이 달라야 된다(표 8 참조). 왜냐하면 교수-학습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조사 보고서나 토론 과정, 발표 자료, 학생 창작물 등을

표 6. 심화 학습 내용 (예시 1)

<p>제목 : 태풍의 이동 경로와 태풍 피해 조사</p> <p>1) 한반도를 중심으로 작성한 태풍의 이동 경로도를 제시한다. (사라, 에그니스, 글래디스, 셀마 등 주요 태풍이나, 올라, 프라피룬 등 최근 발생한 태풍의 이동 경로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시한다. 그 이유는 이들 태풍에 관한 자료가 풍부하고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p> <p>2)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토대로 비가 많이 내렸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지도상에 표시하도록 한다.</p> <p>3) 그 지역에 비가 많이 내렸을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를 설명하도록 한다.</p> <p>4) 당시의 강수 자료를 조사하여 비교하도록 한다(평가 자료로 사용시 생략).</p> <p>5) 틀렸을 경우 그곳에 비가 많이 내린 이유를 다시 설명하도록 한다().</p> <p>6) 해당 태풍과 관련된 자료를 태풍 백서나 기상청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피해 규모를 조사한 후 각 지역별로 구분하도록 한다.</p> <p>7) 홍수, 침수, 폭풍, 해일 등으로 피해의 종류를 구분하도록 한다.</p> <p>8) 특정 유형의 피해가 많은 이유를 각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관련하여 설명하도록 한다.</p> <p>9) 각 지역의 재해 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도록 한다.</p>
--

표 7. 심화 학습 내용 (예시 2)

<p>제목 :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의 특성 조사하기</p> <p>(1) 우리나라에는 얼마나 자주 태풍이 불어오는가?(연도별, 월별로 구분하여 조사)</p> <p>(2) 주로 불어오는 시기는 언제인가?(시기는 반순별 또는 순별로 구분)</p> <p>(3) 어떤 경로로 이동해 오는가?(정상 경로와 이상 경로로 구분)</p> <p>(4) 피해 유형 및 규모는 어떤 추세로 변화되어 왔는가?</p> <p>(5)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의 태풍 피해 상황의 차이점은 무엇인가?</p> <p>(6) 우리는 태풍 피해 예방을 위해서 어떻게 대비하여야 하는가?</p> <p>(7) 태풍 경보 발령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p>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좋다. 평가의 결과도 기본 학습이나 다른 수준의 학습과는 달리 절대적으로 판단하며, 평가의 주관점도 독창성과 창의성, 사고의 다양성, 문제 해결력 등 고차적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평가 결과는 등급화하지 않고 제출한 결과물의 수준에 대한 특장점, 문제점, 보완점 등을 기술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이 평가 결과에 따라서 과제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데, 각 학생들 또는 모듈별로 관심이 높은 분야, 조사 연구가 미진한 분야와 관련하여 과제를 부여한다(표 9 참조). 이 과제는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것보다는 학생 또는 모듈에서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학생들이 그 과제를 수행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에, 교사는 그 결정을


격려하고 결과에 대하여 평가하며 그 이후의 진행 상황까지도 지속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보충 학습 지도 방법

1차시의 지도 내용은 심화 학습 지도 방법과 동일하다. 기본 학습이 끝나면 형성 평가를 실시한 후 학업 성취 수준이 50% 이하인 학생과 학업 성취 수준이 50~70%인 학생중 희망자들로 보충반을 편성한다. 보충반을 편성할 때 성취 수준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학생들이라도 보충반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은 보충반에 편성하고, 보충반 편성 대상자 중에서도 심화반에 속하고자 하는 학생 중 일정 수준 이상의 학생에게는 심화반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

표 8. 심화 학습 평가 (예시)

1) 다음은 어떤 태풍의 이동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비가 많이 내렸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표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라(제시하는 지도에는 가급적 지형 기록도 표시해 줄 것).



(이유)

2) 주요 태풍 10여개를 선정하여 한 지도에 이동 경로를 그리고, 평균적인 이동 경로를 찾은 다음 그렇게 이동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 심화 학습 평가는 수행 평가 또는 과제물 평가로 대체 가능

표 9. 심화 학습 이후 학생 선택 과제 (예시)

- 1) 허리케인과 토네이도가 자주 내습하는 지역의 주민들이 자연 재해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거주하는 이유를 조사하여 발표하시오.
- 2) 사이클론에 의한 주요 피해 유형을 조사하고, 그런 유형의 재해가 빈번한 이유를 그 나라의 재해 예방 대책과 관련하여 설명하시오.
- 3) 미국의 플로리다 주, 일본의 규슈, 인도의 벵골 만의 주요 피해 유형을 조사하고 그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을 것 같다.

보충반 담당교사는 심화반 교사보다 더 유능한 교사를 배정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보충반의 수업이 심화반보다 더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사들이 보충반을 기피하는데, 신규 교사보다는 학생지도 경험이 풍부한 노련한 교사, 전문 지식이 풍부하여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든 재미있고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교사가 보충반을 맡는 것이 더 좋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해당 주제별로 학업 성취 수준에 따라 학급을 새로 편성할 경우에는 두 교사가 교대로 심화반과 보충반을 맡으면 되므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보충반의 학습 내용은 난이도 면에서는 기본 내용 교수-학습과 같거나 한 단계 정도 더 높은 수준에서 핵심 내용 중심으로 약간 다양하게 다루도록

한다(그림 5 참조). 이 때 학생들은 본인 또는 모둠의 의사보다는 교사의 판단을 존중하여 학습 내용을 선택하도록 한다. 교수-학습 방법은 해당 단원의 내용에 따라 달라야 하겠지만 학습자 중심보다는 교사 주도의 학습 위주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약간 다른 각도에서 복습하거나 쉽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재구성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표 10 참조).

학습이 끝난 뒤에는 형성평가를 실시하는데 반복 학습의 경우에는 기본 내용 학습에 대한 평가와 크게 다르지 않다(표 11 참조). 대부분의 평가 문항을, 학습한 내용 중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구성하고, 선택형이나 단문 서술형 중심으로 출제한다. 평가의 결과는 기본 학습과 동일하게 상대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의 주안점은 학습 내용에 대한 이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평가 결과는 등급화하여 목표 수준에 미달한 학생은 특별 보충 지도를 받게 하고, 목표를 달성한 학생에게는 수준에 맞는 적절한 과제를 부과한다. 내용을 재구성하여 학습한 경우에는 심화 학습에 대한 평가와 같이 과제물 중심으로 평가한다.

평가 이후에 부과하는 과제는 학생 개개인 또는 모둠의 성취 수준에 따라 서로 다르게 부과할 수 있다. 이 때 과제를 학생들이 선택하는 것보다는 성취 수준에 따라 교사가 적합하다고 판단한 과제를 해당 학생 또는 모둠에 부과하는 것이 좋다. 과제의 수준은 심화반에서 학습한 내용 중 핵심적인 주제나 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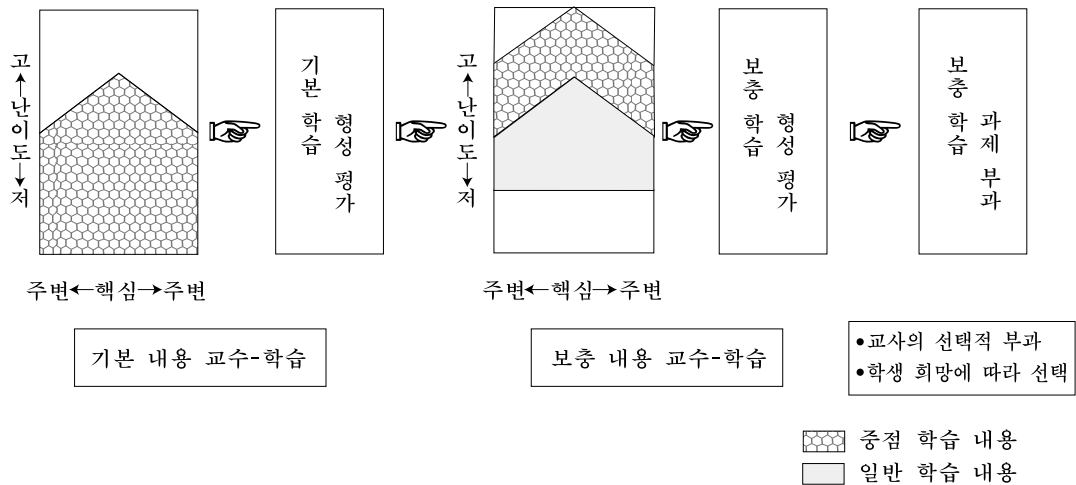


그림 5. 보충 학습 지도 과정

표 10. 보충 학습 내용 (예시)

- 1) 기본 학습에 대한 반복 또는 상세한 부가 설명 방법 (핵심 내용 중심으로 구성)
 - (1) 태풍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의하는가?
 - (2) 태풍과 유사한 열대성 저기압의 예를 들어 보라
 - 각각의 열대성 저기압의 발생지역은 어디인가?
 - (3) 태풍은 열대 해상에서 주로 발생한다.
 - 왜 대륙에서는 잘 발생하지 않는가?
 - 왜 열대 이외의 다른 기후대에서는 잘 발생하지 않는가?
 - 왜 적도 주변의 해상에서는 잘 발생하지 않는가?
 - (4) 우리나라에는 얼마나 자주 태풍이 불어오는가?
 - (5) 우리나라에는 주로 언제 태풍이 불어오는가?
 - (6) 태풍이 불 때 그 주변을 운항 중인 선박은 대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만약 미처 피하지 못했을 경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 2) 평이하면서도 흥미로운 내용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학습하는 방법(주변 내용 중심으로 구성)
 - (1) 태풍의 이름은 어떻게 정하는 지 알아보자.
 - 왜 그런 이름을 붙이는 지 이유도 알아보자.
 - (2) 지리산의 골짜기에서 야영을 하고 있을 때, 태풍 경보가 발령되었다.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겠는가?
 - 다른 상황을 제시하고 행동 요령을 진술하게 한다.
 - (3) 태풍이 육지에 상륙하면 그 세력이 급격히 줄어든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 (4) 태풍은 우리에게 막대한 금전적 이득을 제공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를 들고, 그 이유를 설명하라.

미로운 주제와 관련하여 부과하는 것이 좋다. 과제는 차후에 수합하여 평가를 하되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과제물의 장단점이나 보완 사항 등을 기술하는 정도가 적합하다(표 12 참조).

5. 특별 보충 학습 지도 방법

사회과의 경우 교육과정에 특별 보충 지도 과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즉 특별 보충 과정을 운영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받아 들여도 좋다. 하지만 제 7차 교육과정에서 수준별 교육과정을 적용하면서 중점을 두고 있는, 학습 부진아의 중도 탈락없이 모든 학생이 진급하도록 하려면 사회 교과에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 보충 지도를 해야 되리라고 판단된다.

표 11. 보충 학습 평가 (예시)

- 1) 반복 학습의 경우에는 기본 학습과 유사한 형태의 평가
 - (1) 태풍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의하는가?
 - ① 피해 규모 ② 중심 기압 ③ 중심 최대 풍속
 - ④ 최대 강수량 ⑤ 저기압의 반경
 - (2)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태풍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태풍 중심의 왼쪽은 태풍의 진행 방향과 중심으로 붙어드는 바람의 방향이 달라 오른쪽보다 바람이 약하다. 따라서 향해하던 선박이 태풍을 만났을 때 왼쪽으로 피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 (3) 열대 해상에서 태풍이 잘 발생하는 이유를 열거하시오.
 - (4) 우리나라에 태풍이 자주 불어오는 시기는?
- 2) 재구성 학습의 경우에는 모둠에서 제출한 과제물 중심으로 평가

표 12. 심화 보충 학습 관련 기타 사항

- 1) 보충 학습 이후 과제는 심화 학습 시간에 제시한 학습 내용 중 세부 항목을 학생들이 선택하여 과제 수행.
- 2) 특별 보충 학습 내용은 기본 학습 및 보충 학습 내용에 대한 상세한 부가 설명.
- 3) 심화 학습 및 보충 학습 자료는 검정을 통과한 여러 종류의 교과서 및 지도서의 내용을 잘 활용하고, 태풍 관련 전문서적과 기상청 홈페이지 등의 자료를 참고하기 바람.

현행과 같이 고등학교 진급시 특별한 선발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천차만별의 수준을 가진 학생들이 한 학교의 한 학년, 한 학급에 배정되기 때문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이와 같은 수준 차이는 쉽게 극복하기 어렵다. 이 수준 차이는 사회과의 교수-학습 이전에 이미 크게 벌어진 상태이며, 다른 교과목에도 누적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잠깐 잠깐 특별 보충 지도를 한다고 해서 그 수준 차이를 단기간 내에 극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와 같이 교과별 학업 성취 수준이 낮은 학생을 재이수하게 하지 않고 진급을 시키기 위해서는 특별 보충 학습을 거의 상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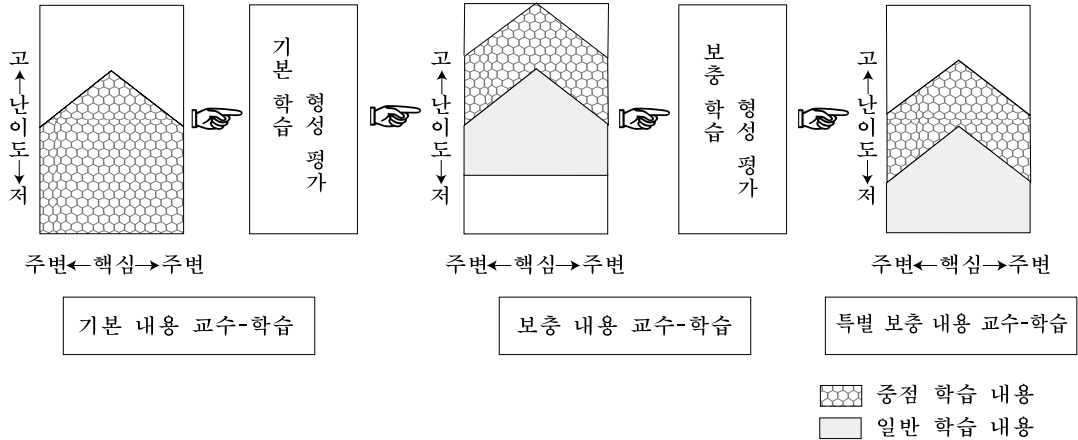


그림 6. 특별 보충 학습 지도 과정

특별 보충 지도를 받아야 될 대상은, 보충 과정을 거친 후 보충학습에 대한 형성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하고, 성취 수준이 목표 수준에 미달하는 학생이 없으면 특별 보충 학습 지도를 하지 않아도 된다. 목표 수준은 교사가 판단하여 결정하되, 보충 학습에 대한 성취 수준이 60~70% 미만인 학생을 선정하는 것이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특별 보충받은 보충 학습 평가 결과에 따라 서로 다른 학생으로 편성될 수밖에 없다.(그림 6 참조).

6. 사회과의 수준별 교수-학습 자료 제작과 활용

제7차 교육과정기에 사회과는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에 따라 교수-학습을 실시하도록 고시되어 있다.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은 기본형, 심화형, 보충형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특별 보충 교육도 이루어져야 하므로 최대 네 종류의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해야 된다. 한 종류의 교수-학습 자료만 개발해도 되었던 기존의 일제식 학습에서도 교수-학습 자료의 제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네 종류의 교수-학습 자료를 각 학교마다 개발한다는 것은 정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지역과 학교에 따라 여건이 다르고, 게다가 수준별로 서로 다른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해야 되는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별도의 자료 제작팀을 구성하여 가동해야 한다. 새로이 단체를 구성하는 것도 좋지 만 번거롭고 지체될 수 있으므로, 기존의 교사 단체를 활용하는 것도 현명하다. 현재 전국지리교사연합

회, 젊은지리교사모임과 각 시도의 중등지리교육연구회 등 많은 교사 단체가 결성되어 있고, 산하 기구로 자료 제작팀을 가동하고 있는 단체도 있다. 따라서 이들 단체를 확대 또는 개편하여 수준별 교수-학습 자료를 제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는 기존 구성원 외에 대학·연구소·고등학교 등에서 지리 교육을 담당하는 교과교육 전문가, 일선 고등학교 교사, 각 시도 교육청 및 교육과학연구원 등의 장학진 등을 추가 영입하는 것이 업무 추진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각 시도별로 영역을 분담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자연지리 분야에 뛰어난 인적 자원이 풍부한 시도는 자연지리 영역의 자료를 개발하고, 인문지리 분야에 뛰어난 인적 자원들이 풍부한 시도는 인문지리 영역의 자료를 개발하는 식이다. 전문성 제고와 오류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분야별 개발은 각 시도가 담당하더라도, 다른 시도의 자료 제작팀이 교차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리 영역의 교수-학습 자료 중에는 사진, 그래프, 지도 등이 많기 때문에 개발된 교수-학습 자료를 도서 형태로 제작하여 배포하는 것은 질, 활용도, 가변성, 호환성 등이 떨어질 우려가 높고 자료 제작 및 배포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료를 제작하고 인터넷을 활용하여 배포하는 것이 여러 모로 효율적이다. 그리고 지리 자료의 특성상 최신 자료로 자주 수정 보완해 주어야 되는데 이런 측면에서도 도서 자료는 효율성이 떨어진다.

앞으로 사회 전담 교과실을 확보하고 필요한 기
 자재를 구비하게 되면 예전에 비해 컴퓨터와 연결된
 시청각 학습이 더욱 중요해 질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비하여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
 다. 또한 교내외에서 학생들의 자발적인 개별 학습
 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도 교사 또는 학교 차원의 홈페이지와 관련 학회나
 관련 학과, 교사 단체, 사회 교과서 출판사 중심의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각
 사이트와 홈페이지는 개설도 어렵지만 유지 관리는
 더욱 힘들다. 전담 운영자를 두고 수시로 자료를 갱
 신하고, 학생들의 질의에 충실하게 응답해야 할 것
 이다.

IV. 결 론

제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02학년도부터 고등
 학교 1학년 사회 교과도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이미 수준별 교육과정에 맞게 교과
 서 개발도 완료되었고, 검정도 거의 마무리된 상태
 이다. 불비한 교육 여건 때문에 수준별 교육의 시행
 을 전면적으로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시행을 유보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너
 무 늦었다고 판단된다.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 왔던 과거의 일제식
 수업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 동안 교육개혁위원회가
 전문가 집단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새롭게 제안한 것
 이 바로 수준별 교육과정이다. 우리나라의 교육 여
 건에 비추어 볼 때, 수준별 교육과정을 제대로 현장
 에 적용한다는 것은 분명 무리이다. 하지만 더욱 심
 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기존의 일제식 수업을 계
 속하는 것은 우리의 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다. 따라서 새로운 교육과정의 적용에 반대하기 보
 다는 현재의 여건을 고려한 현장 적용 방안을 모색
 하고, 점진적으로 새로운 교육과정의 정신을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난 5년여 동안 수준별 교육과정의 총론 부분에
 대한 연구는 상당 부분 정리가 되고, 많은 연구 결과
 물이 발표되었지만, 각론 부분에 대한 연구 특히 현
 장 적용 방안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결국
 이런 연구는 각 교과를 중심으로 이루어 질 수밖에

없으며, 해당 교과와 관련 인사들이 힘을 결집해야
 만 올바른 방향으로의 개선이 가능하다. 이런 맥락
 에서 고등학교 사회과 수준별 교육과정의 현장 적용
 방안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게 되었다.

고등학교 1학년 사회의 경우 교육과정상에 명시
 된 22개 주제에 대해 심화보충형 수준별 학습을 실
 시하면 된다. 하지만 여건이 성숙되면 수준별 수업
 을 실시하는 주제의 수를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일부 주제만을 대상으로 수
 준별 수업을 실시할 경우 대단원, 중단원 또는 관련
 주제의 형성 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차시마다
 수준별 학습 집단을 편성하면 되고, 모든 주제를 대
 상으로 수준별 수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이전 정기
 고사 자료를 바탕으로 학습 집단을 편성하되, 안정
 성을 고려하여 학기 단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후자의 경우 다른 교과도 수준별 수업을 실시해
 야 될 것이므로 사회과가 아니라 전 과목 또는 도구
 교과목의 성취 수준에 따라 수준별 학습 집단을 편
 성해야 되는 문제점이 예상된다.

현재의 여건으로 볼 때, 수준별 학습 집단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편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유형은
 학급내 수준별 학습 집단 편성으로, 한 학급의 학생
 을 대상으로 2~3 수준의 여러 모둠으로 학습 집단
 을 편성하는 것이고, 또 다른 유형은 두 학급의 학생
 을 대상으로 심화반과 보충반으로 재편성하고, 각
 반을 다시 수준에 따라 두 수준의 여러 모둠으로 학
 습 집단을 편성하여 수준별 수업을 실시하는 것이
 다. 수준별 학습 집단 편성 시기와 각 학교의 여건에
 맞게 선택하여 적용하면 되겠다.

심화과정과 보충과정은 기본 학습 내용에 대한
 성취 수준 70%를 기준으로 구분하되, 학생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심화 과정은 기본 과정보다 심도 깊고, 창
 의력, 사고력, 문제해결력을 신장할 수 있는 내용으
 로 구성하며, 개인별 또는 모둠별로 자기 주도적 학
 습을 실시하도록 한다. 이에 대한 평가나 사후 과제
 부과 등도 동일선상에서 이루어지도록 유의한다. 보
 충 과정은 목표했던 성취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기본 과정을 반복하거나, 평이하지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유사한 내용으로 재구성할 수 있으며, 교사
 의 세심한 안내 및 지도와 아울러 개인별 또는 모둠
 별로 자기 주도적 학습을 실시하도록 한다.

수준별 학습을 빠른 시일 내에 정착시키고 교수-학습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재량 활동 시간의 전용 등을 통하여 충분한 수업 시수를 확보해야 하며, 각 수준과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에 적합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널리 배포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특히 교수-학습 자료 제작은 중요하면서도, 어렵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작업이므로 사회 교과 관련 인적 자원을 총동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각 학교와 교사는 이들 자료를 검색하여 학교 여건에 맞게 수정 또는 변환하여 사용하면 된다.

수준별 수업에 대한 평가는 학습한 내용 모두에 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평가 자료 모두를 활용하도록 한다. 이 자료는 수준별 학습 집단 편성뿐만 아니라 내신 성적 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수준별 수업의 실시로 인하여 증가하는 교사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교사 총원 또는 보조 교사 배치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해당 주제별 수준별 수업은 2차시에 걸쳐 이루어지며, 1차시에는 모든 학생이 기본 과정을 이수하고 형성 평가를 실시한 후, 2차시에는 학업 성취 수준에 따라 심화 과정과 보충 과정으로 구분하여 수준별 수업을 진행한다. 심화 과정에서는 모듈별로 과제를 선택하여 수행하고, 제출한 과제물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추가 과제는 학생이 선택하여 각자 수행한다. 보충 과정에서는 기본 과정을 반복하거나 별도로 제시한 과제를 수행하며, 형성 평가나 과제물 평가를 실시한 후, 성취 수준에 미달한 학생은 특별 보충 지도를 받고, 성취 수준에 도달한 학생은 별도의 과제를 선택적으로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여러 교과목을 대상으로 수준별 교육 과정을 원래 의도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학생 이동 수업 방식 도입, 교실의 추가 확보, 교사의 총원, 이수 단계의 학생 선택, 재이수 및 속진 허용, 평가의 자율권 보장, 중등학교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 대학 입시의 자율성 보장, 교과서 발행 제도 변경 등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교육 관련 제도의 변화는 그 영향이 심대하므로 반드시 치밀한 검토와 현장 연구를 통하여 효과와 문제점을 검증한 후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해 나가야 할 것이다.

謝 辭

본 논문은 여러 분들의 도움 덕택에 무사히 출판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많은 조언을 해 주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최석진, 김정호, 소경희 박사님과 교육부의 노희방 박사님, 관악 고등학교의 탁송일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표와 그림을 작성해 주신 성지문화사의 최광연 전무님과 박우성 부장님, 논문을 심사해 주신 심사위원 여러분과 김종욱 교수님을 비롯한 편집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 논문을 쓸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 주신 서울특별시교육과학연구원에 감사드립니다.

註

- 1) 필자는 기본적으로 어떤 변화를 시도할 때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특히 한 인간의 전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결국에는 사회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야기할 교육 정책 및 방향의 전환은 더욱 신중해야 된다고 평소부터 생각해 왔다. 따라서 수준별 교육과정을 적용할 때에도 특정 학교 또는 특정 학년부터 먼저 실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한 후에 연차적으로 확대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2) 학교간 수준별 학습 집단 편성을 위해서는 고입 선발 제도를 부활해야 한다. 즉 현행 평준화 정책을 철회해야만 가능하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모든 학교에 학생 선발권을 위임하고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다. 왜냐하면 지역, 학교마다 교사, 학생, 교육 시설, 학부모, 주변 여건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상황이 서로 다르다면, 그에 걸맞는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해야 하는데, 현재와 같이 공립과 사립, 도시와 농촌, 대도시와 중소도시, 부유한 지역과 빈한한 지역 등의 구분 없이 획일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수요자의 입장에서 볼 때 “맞춤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육 기회”의 평등을 “학습 능력”의 평등으로 오해함으로써 평준화 해체에 대한 반발이 심하여 이를 도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 3) 교육과정상에는 속진 및 재이수가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음.
- 4) 물론 필자는 이점에 대해서도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

다고 판단하는데, 그 이유는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 과목 선택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여러 가지 현실 때문이다. 첫째, 교사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둘째, 교실수가 현저하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제도적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가장 적용 가능성이 높다.

- 5) 각 교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학업 성취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교과목을 대상으로 학급간 수준별 학습 진단을 편성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그리고 수준별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단계형이나 심화보충형 역시 그림 1의 3-4, 4-4 유형으로 연결되는 이동수업을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6) 여기에서 논의하는 수준별 학습 집단 편성 기준 및 편성 시기는 단계형과 심화 보충형 모두 적용 가능하다.
- 7) 허경철 외(1996)에서는 80%를 제시하였고, 조난심 외(1997)에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음.
- 8) 지금까지 발표된 연구보고서의 대부분은 학생의 자발적인 선택을 존중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왜냐하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때, 학습에 몰두하여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보람을 느낄 수 있으며,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학습 활동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9) 교육과정 문서에는 심화 학습 내용만 제시되어 있는데 학업 성취 수준이 높은 학생들이 심화 학습을 할 때 학업 성취 수준이 낮은 학생들은 보충 학습을 하는 것이다.
- 10) 실제로는 이 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량활동 중 2단위, 즉 연간 34시간을 추가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사회과의 경우 크게 지리와 일반사회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2단위를 추가 확보하게 되면 각 영역의 교사가 해당 전공 영역을 지도하기에도 좋다.
- 11) 아직 교과서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서 정확한 주제명(또는 소단원명)을 알 수 없고, 교과서 개발이 완료된다 하더라도 교과서마다 주제명이 다를 가능성이 높으므로 편의상 이렇게 표기하였음.
- 12) 심화반은 심화분단, 심화 모둠, 보충반은 보충 분단, 보충 모듬의 의미까지 포괄하여 사용하였다. 이후의 논의에서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였음을 밝혀둔다.
- 13) 기상청에서 1996년 발간한 태풍백서나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에 태풍과 관련된 자료가 풍부하다. 특히 기상청 홈페이지의 자료실 중 태풍 자료실과 신문 기사 검색, 기상 배움터 중 기상 대학→기상학 개론→8장 태풍을 참고하기 바람.

14) 현재 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가 40명 내외인데, 이에 따르면 한 분단에 10명 정도씩, 한 모듬에 5명 정도씩 배정이 될 것이다. 학습 효과 증진의 측면을 고려한다면 모듬 편성이 더 나은 것으로 판단된다. 상반과 하반의 인원은 학습 집단 편성 방법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따라 모듬별 인원도 달라져야 한다.

文 獻

- 곽병선, 구자억, 김재춘, 박순경, 신동로, 유균상, 유한구, 이범홍, 이찬희, 최석진, 홍후조, 1996, 교육과정 2000 연구 개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체제 구조안,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개혁위원회, 1995,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 개혁 방안.
- 교육개혁위원회, 1996,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 개혁 방안(II).
- 교육부, 1997, 제7차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1997-15호.
- 교육부, 2000, 제7차 교육과정지원장학협의단 시도 초등학교 교과요원 워크숍 자료.
- 교육부, 2000,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사회-.
- 교육부, 2000, 제7차 교육과정의 개요, 교육과정자료 29.
- 기상청, 1996, 태풍 백서.
- 김재춘, 2000, 수준별 교육과정의 이해, 교육과학사.
- 김주훈, 김재춘, 박경미, 최진황, 진경애, 정구향, 강운선, 유준희, 1998, 제7차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수준별 교육과정 현장 적용 방안과 교수-학습 자료 개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대통령자문교육개혁위원회, 1995,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 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
- 서울시교육청, 2001,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
- 유준희, 1998, 제7차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과학과 수준별 교육과정 적용 방안과 교수-학습 자료 개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화진, 허경철, 조덕주, 소경희, 부재율, 김성기, 2000,

- 제7차 교육과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후속 지원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조난심, 김재춘, 허경철, 박순경, 홍후조, 1997, 제7차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수준별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허경철, 김왕근, 김홍원, 박경미, 이범홍, 이인제, 조미혜, 조정윤, 황규호, 1996, 교육과정 2000 연구 개발 수준별 교육과정안, 한국교육개발원.
- 홍후조, 박순경, 김성숙, 소경희, 김진숙, 1999,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교육과정 실행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Elmore, R. F., 1991, *Restructuring Schools*, Jossey Bass, San Francisco.
- Oakes, J., Gamoran, A., and Page, R. N., 1992, *Curriculum Differentiation: Opportunities, Outcomes, and Meanings*, P. W. Jackson(ed.), *Handbook of Research on Curriculum*, Macmillan, New York.
- Postlethwaite, K., 1993, *Differentiated Science Teaching*, Open University Press, Buckingham.
- Slavin, R. E., 1990, Achievement Effects of Ability Grouping in Secondary Schools : A best-evidence synthesi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60, 471-499.